

2016년 2월 15일 새벽말씀(편집본)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있어서 <구세주> 하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데는 <구세주>와 <말씀>입니다.

‘구세주’ 찾고, ‘말씀’ 찾고 하면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메시아다.” 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저게 물이다. 저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로 듣던 물이다.” 했으면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고 닦고 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물을, 수로를 내서 사막을 개발하자.” 했어도 개발해야 사막이 푸른 초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물이다. 바로 저 물을 두고 사람들이 전설같이 말했구나. 사막에 물이 있다고 하더니 저기구나.” 그러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을 사용해야지.

구세주가 있으면 구세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말씀이 시작되었으면 강림한 것을 압니다.

말씀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면 말씀을 딱 중단했을 때는 마치 가뭄이 연속되는 것과 같아서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나무도 죽고, 대지가 다 생명들이 존재할 수 없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봤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면 풀들이 다 죽어 버렸다가 비가 다시 오면 다시금 또 풀이 나고, 그리고 나무에 잎이 피는 것을 보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돼 가고, 말씀을 안 주면 딱 중지됐습니다.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지자요, 메시아입니다.

지금 말하는 <말씀>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서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나 메시아를 보내서 말씀을 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시작돼서 사막 땅에 비가 와서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또 시작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안 시작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아는지 하니,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종전에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의 말씀입니다.

선생도 그 전에 있는 기독교의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지금도 내 고향의 석막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도 아직 못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보다 선배인 다른 사람도 지금까지 장로가 안됐습니다. 그 말씀만 들었으면 그 교회에 지금도 다니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해서 새로 여러분들이 와서 역사를 편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떠한 개척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독교의 말씀을 갖고서 했으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교회도 제대로 없고, 접방살이 하는 교회로 왔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된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하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무엇을 갖고 나타나야 좋아합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입을 것을 가지고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야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까짓 것, 옷 한 벌씩 사 가지고 와서 나타나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나타나요?

돈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지옥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다 면했게.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시대의 말씀, 그것을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의 말씀을 선생을 통해서 요리를 해서, 요리 조리 사람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도 말씀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옵니까? 내 얼굴 화면 보러 와요? 말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 만치만 해도 새벽에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손을 못 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없애시고. 그것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가는 길만 사탄이 못 잡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잡고 붙잡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냐? 무엇을 보고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구세주나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먼저 영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되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 해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령 선생이 모든 ‘시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봐도 “나를 받아들였다. 나를 영접했다.” 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말씀이 가지고, 그에게도 역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시게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려면,

처음에 말씀을 받으려면, 이방 사람들이 받으려면 말씀하는 사람이 잘 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해 줘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말씀을 잘 받으려면, 본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딱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말씀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다. 말씀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말씀 갖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부활되고, 말씀 갖고 이렇게 대할 사람을 저렇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변화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나와 형제하자.” 했을 때 받아들이면 형제로 되고,

“너, 내 옆에서 일 도와줘. 비서 해.” 했을 때 받아들이면 비서가 될 것이고,

“너, 나와 같이 애인 하면서 살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애인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 나와 같이 살자.” 했을 때 받아들이면 구약 때는 중,

“너, 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자.” 했을 때 신약시대 때는 아들이 돼서 살았고, 이 시대는 “너, 이 시대에 나와 같이 살자.” 하고 말씀을 주었을 때 “네!” 하면 이 시대에 애인같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했을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흑암이 되고, 사탄이 되고, 말씀을 불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받고서 말씀의 생활을 하면 이제는 ‘말씀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몸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신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신부의 몸,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중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기도를 천년 동안 해도 말씀 못 받으면 못 이루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성경책이 27권 제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는 조그마한 쪽 복음을 사서 봤습니다. 그것은 흔적도 없이 썼습니다. 계속 갖고 다니면서 썼습니다. 얼마 못 가서 막 비 맞고 그러니까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고!

여러분같이 성경책 갖다놓고 일반 만화책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텔레비전 연속극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으면 하나님께 편지가 온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계속 읽어보고 그러다가 “어? 나한테 한 말이네.” 하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편지 온 것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읽어봐야지.’ 합니다.

그와 같이 (선생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지구상에서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일 귀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금메달 하나만 받아도 어디를 가면 “야!”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받은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그러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의 것! 이 세상 것 말고, 영원한 세계의 것!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그는 신이다! 신.”

신이나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시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말씀을 다 ‘저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말씀 받았으면 이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도 신이 된 것입니다. 신이니까 신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역사하는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즘에 말씀을 하는 대로 돌아가고, 말씀하는 대로 되니까, 어제 <뜻 피는 섭리사>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뜻 피는 섭리사”

이 뜻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는 이 섭리역사.

“말씀을 들으니 이제 주와 같이 지상천국 이루어가며 기뻐하네. 지상에는 천국 문이 열렸도다”

말씀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안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역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 이루었다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항상 천년 동안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택한 자들은 모두 와서 혼인잔치 펼쳐간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고, 우리는 신부로서 역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시대든지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와도 몰랐습니다. 가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역사했을 때에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보다 백만 배, 1억만 배 이상 될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1억만 배보다 더 큼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아예 비교를 못 하니까. 하늘과 땅과 같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해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택했는고 하니, 꼭꼭 예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예정되게 했습니다.

의롭게 착하게 살고, 무엇인가 찾고, 새로운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들으니까, 싹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애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애인으로! 선생님은 그렇게 사니까. 아주 애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인보다도 더 가까워야 됩니다.

애인은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토라지고 울고 짜고. 하나님께 싸우고 울고 짜고 하면 되겠어요? 평생 안 싸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보다 더, 더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택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신랑같이 섬기고, 여러분들은 신부가 돼서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 세상에서는 일개 나라의 왕만 되어도 으악 하는데, 이 세상의 일개 나라의 왕은 하나의 마을의 통장밖에 안 된다. 하늘나라 전체에 비하면 일개 마을의 통장밖에 안 된다.”

이 세상 지구촌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일개 마을의 통장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큼니다.

“너희는 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몰라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인데. 사람도 신이 되면 별 짓을 다 하는데.

사람도 신이 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도 신이 되면, 기도하면 지구 덩어리의 운명이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저리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 때문에 지구 전체의 운명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말씀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잘 시대를 깨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름을 받고 온 여러분들, 감격하고 감사하며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주 죽는 데의 약입니다. 꼭 죽을 것인데 그것을 먹고 살아나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자기 것’이라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착수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해 봤지요?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홀연히 여러분 자신들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것으로! 역시 말씀은 위대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데서 떨면서, 손을 불어가면서, 영하 15도~ 20도 가까운 데서 계속 달달달 떨면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받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그 몸부림을 쳐야 실천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려고 몸부림쳐지지요? 너무 힘들고? 싫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 교회만 가면 말씀 받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말씀 받으려면 산에 가서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기본적인 말씀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적인 말씀 속에 여기 들어 온 말씀이 후반기 말씀, 부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고, 환경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다양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보면서 전달하기도 하고, 시대의 말씀 들으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만큼은 완벽하게 해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완벽하지 못하면 귀신 영들의 계시를 받아서 자꾸 돌아갑니다. 계시과들같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확실히 받고, 그렇게 되면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근본의 하나님을 깨닫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금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준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끔, 말씀을 많이 해 달라고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썩는 것은 다~, 썩는 이를 빼내고, 썩는 이를 갈아내서 다시금 하듯이 깨끗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줄지 말고, 기도할 때 똑똑히 하고, 그리고 행실도 똑똑히 실천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기도해 주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새로운 역사가 오면 기다리던 역사의 사람들과 항상 싸웠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진리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랬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따라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불신한 격이 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그냥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2000년 신약역사로 계속 펴 와서 구약역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구약 사는 4000년 동안 했는데 조그만치, 신약역사는 2천년 동안 해 왔는데 상상도 못하게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권능과 의가 되시고, 역사의 흐름을 깨닫고 시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을 영접한 자요, 그리고 시대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받아들였으니 나를 영접한 자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서 잘 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의로 채워 주시고,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섭리의 나라들이 모두 잘 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계속 전하라. 그렇게 전하면 조금 밖에 안 온다.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라. 들으면 올 것이고, 안 들으면 그냥 갈 것이다. 전하라!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그들에게 전해 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찌어다.

평강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